

이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11월 일



연구기관 충북대학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안 홍 국

제 1 장 · 남북대화와 대학의 사명 3

 1. 서 론 3

 2. 남북대화와 대학의 사명 6

제 2 장 ·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그 동향 9

 1.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그 동향 9

 2. 시대변천과 새로운 배경 17

 3. 한국학생운동의 개요와 그 동향 25

 4. 한국대학생의 당면문제 32

제 3 장 · 북한공산주의에 대비할 정신자세 37

 1. 승공교육의 사적 개요 37

 2. 북한 공산주의에 대비할 정신자세 44

제 4 장 · 남북대화교류에 대한 학생여론의 문제점과 선도방안 51

 1. 학생여론조사의 설문과 그 비율 내용 52

 2. 학생 선도방안 58

제 1 장 남북대화와 대학의사명

1. 서 론

우리는 오늘날 강대국에 의한 다극체제하의 국제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국제정세의 전환기에 처하여 여기에 대응할 체제강화를 모색하고 밀고나가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종래의 국제관계가 이념의 대결이라는 냉전체제에서 탈이데올로기적 실리추구의 강대국들의 국제외교노선에 적용하여 우리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다짐하는 대응책이 바로 유신체제의 출범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며 여기에 자립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주적 한국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통하여 안정된 문화사회 질서와 기반을 구축하여 민족의 역사적 임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에있어서 이미 박정희대통령의 8.15선언과 그후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남북대화과 남북조절위원의 구성과 704 공동성명을 통하여 우리의 조국의 평화통일에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여왔다 특히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관한 특별성명」은 현상 유지속에서 화해와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국제정치의 수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원칙을 선언한것이라고 할수있다.

이러한 당위적 명제하에서 지난날 2년에걸친 남북대화가 7차에걸친 서울과 평양간의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3차에걸친 남북조절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실감하게된것은 14반세기를넘는 27년간의 국토의 양단속에서 철저하게 이질적인 남북한의 체제차이로 인하여 남북대화

가 얼마만큼 어렵고 따라서 공산주의체제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완고하고 비타협적인가를 온국민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할수있다 .

뿐만아니라 오랫동안 중단상태에서 일종의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였으며 최근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기를위할 우리측의 노력과제와는 평양측이 현실성없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회신으로서 또다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 이미알려진바 「남북조절위」 서울측은 지난 15일 「남북관계 정상화를위해 필요하다면 남북조절위의 개편을 포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 간사위원의 판문점회담」을 제의했던 것이다 . 그러나 이에대한 북한측반응으로 알려진것은 1 . 6 . 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을 취소하고 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자를 모두 석방하고 2 . 조절위원회를 양측의 정당사회 단체대표로 구성하는 등 선행조건이 이행됐을때만 제 4 차 조절위를 위한 간사위원회담에 응하겠다는식의 사실상 회담거부나 다름없는 태도로 나오고있다 그들의 이런제위가 당치도않는 내정간섭이요 자기뜻대로 한국을 적화통일로 이끄러나가라는 공산주의의 일관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밖에 볼수없으며 특히 6 . 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은 그자체가 남북대화시대에 맞게 적응하려는 외교선언이며 국제해빙기류에 맞춰 평화통일 외교에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정책임에도 이를 철회하라는것은 남북대화도 국제평화 조류도 그들의 안중에 없다는 식의 태도로밖에 더간주할수없는 것이라 하겠다 .

이상 본바에서 남북대화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장래는 매우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거듭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면에는 다음과같은 점을 분석할수 있을 것이다 .

즉 북한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 1 . 감상적인 통일논에 따르는 국민의 반공의식의 해이
- 2 . 남한의 방위체제의 둔화
- 3 . 남한에서의 합법적인 공산주의 정치활동
- 4 . 주한 미군철수
- 5 .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부각

등을 기대하였다고 본다 .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속셈은 중대한 시행착오임이 들어났고 그동안 북한수민들에게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엄격한 내핍생활을 강요하는 북한으로서는 당장 개방된 남한사회의 발전상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

더우기 6.23 외교선언에 의해 국제적으로 고립화된 처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남북대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북한측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언젠가는 대화가 재개될것이라고 보아진다 .

다만 그시기는 대남공작의 입장에서 전술적으로 대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측이 판단한때가 아니라 대화중단의 책임을 더이상 회피할수없고 5천만의 민족의 염원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는때가 있을것으로 본다 .

여기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더욱큰 인내심과 노력이 주도적으로 경주되어야할 것이다 .

그러하기 위하여 국민의 총화 단결속에서 자립경제 건설과 자주국방의 안보체제를 강화하여 승공의식에 투철한 국민정신의 함양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똑바로보고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남

북대화를 추진하고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대학의 사명

대학의 사명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사명이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첫째, 한국가사회의 지적문화의 창조적 원동력으로서 고도의 지적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는데 그목적이 있다. 대학이 이와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문화의 계승을 위해서는 교육기능이 필요하며 이 양자는 밀접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둘째로 대학은 국가사회의 지도적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이다. 국가사회의 기능이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발전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대학은 깊은 학문적연구의 토대위에서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며 배출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하여 국가사회문제 해결과 발전에 기여하여야할 것이다. 지난날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했다. 이는 일반사회와 직접 관계를 맺지않고 시는 순수한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이므로 속된 현실사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결코 대학이 종래의 의미의 상아탑만은 아닌것으로 현실사회를 냉정히 연구하고 직접 관여하여 발전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사명을 증가시키고 있는바 이것이 또한 사회봉사를 통한 중요한 대학의 기능의 하나인 것이다.

대학이 국가사회 발전의 부레인으로서 그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장차 국가사회 발전을 담당한 중추적 역할

을 밀고나갈 추진세력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대학은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의욕적인 지성인, 이성인을 사회에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70 년대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신체제를 확립하여 안보체제의 확립과 국력배양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한반도의 통일은 많은 시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견할수 있는 장래에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문제는 학문적인 검토와 꾸준한연구 그리고 과학적인 설계를 필요로하는 과제인 것이다 . 여기에 통일문제에 관한 대학내지 대학인의 이루어야할 사명이 있다고보며 그것은 눈앞의 이해 관계로 쫓기는 임기응변적 대응책이나 상식적 속론을 초월하여 원대한 통일이념과 비전위에 체계적 가치를 지닌 통일 구상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해야한다 .

대학에 있어서 통일문제는 그연구과제 자체가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으로서 정립하려고 할때 어떤 특정학과에만 속할수 없으며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종합적 의의를 가지는것이기 때문에 정치 , 경제 , 사회 , 인문 분야는 물론 자연 과학의 전분야에 걸친 종합에 의해서만 그 완벽을 기할 수 있다 . 통일문제 자체가 전민족적 건

국가적 과제인만큼 대학에 있어서의 통일문제 연구도 학문적 건
대학적인 과제인 것이며 따라서 전대학인이 비상한 관심과 주의를
둘러야 할 문제이며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적극적인 연구의 진행이 추
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2 장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그동향

1. 대학생의 심리및 성격

대부분의 대학생은 연령상으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생리적으로는 성인이나 정신적으로는 미숙하여 균형이 잡히지 못하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 동년배의 비학생 청년들은 취업하여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결혼하고 또 수입을 얻어 원하는대로 이를 사용하는 이룰때면 그들대로의 책임과 행동결정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제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면제되는 기묘한 특권을 갖는다. 당자들이 사회의 구속을 받지 않으려고 할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 학생들의 무책임한 청년으로 간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듯하다. 학생의 범법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대학이 그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보호 및 훈육의 책임을 지는바 대학의 자치권은 학문의 창의성과 창조력을 위하여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과 더불어 학생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상징으로서의 일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이와같은 사회적 지위는 청년기 특유의 반항적 경향을 강화시키기 마련이다.

어느정도의 반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가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대학입학 전까지의 부모의 통제와 기

타의 제약이 크면 클수록 입학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자. 자주성을 더 많이 주장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입학후에는 부모도 방임하고 학과 공부도 심하지 않은 상태에 서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조장된다. 대학생은 또 가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설사 사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없고 소박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부르짖게 된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만사를 이론화하고 체계화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히 사색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념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인류사를 끊임없이 점철하는 세대간의 갈등은 크게 그때의 사회변화의 완만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나 젊은 세대가 언젠가 구세대와 전통에 도전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어느시대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책임의 원리를 내세워 신중과 점진을 주장하는 성인세대에 대하여 젊은 세대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이상으로 대항하며 이 이상은 자연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띄우게 되고 또한 사회의 운동에 참여까지 발전하게 된다. 학생은 따라서 그의 부모보다 더 급진적이고 사회적으로 볼때 그의 출신계급 보다 더 급진적인 이념을 가져게 되는 것이다.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판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가 학생 집단의 과격한 이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어느정도 묵인하

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동기와 목적이 학생자체를 위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를 위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성격을 들 수 있다. 다른 어떤 집단 보다도 더 동질적이고 연령·교육·출신계급 또는 신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대학생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자명하고 특수한 존재로서 취급되며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단기적이고 단순한 행동에 그칠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관대한 취급을 받게 된다.

중세 유럽 이래의 전통으로 되어있는 대학의 자치는 이와같은 사회와 대학사이의 상호관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학생들의 언어행동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안 가진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학생들은 그 경제력이나 지식의 정도에 맞지 않는 과대한 힘을 여론형성의 과정에 작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때 유럽의 전통적인 학생의 정치운동의 후계자로서의 기능을 현재의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치는 사회개혁에서 독일, 프랑스 및 러시아의 대학생들이 행한 선구자적 활동은 혁명 선동 및 시위를 통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에서 무시하지 못할 본보기를 후배들에게 남겼다. 또 이와같은 서구문명의 유산을 공부하고 그 자유주의 합리주의 및 민주주의의 이념을 자기 제나라에서 선도적 위치에서 실천하려는 후

진국의 대학생 및 지식인에게 있어서도 정치참여라는 전략은 그대로 계수되어 왔던 것이다.

이 점은 후진국 또는 발전도상에 있어서는 선진국가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 문화수준이 그들 자신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의 역사속에서 살아왔고 비교적 정치, 사회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

선생국에 있어서는 정치사회 기반의 불안정과 국민대중의 소외는 내지는 무관심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사회참여를 하게 되는 일반적인 심리요인을 배경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1960년 대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도 규모와 범위가 큰 학생의 정치활동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배경을 이루는 부가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대 간의 격차나 젊은이의 급진적 이상론은 학생운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 요인에 불과하여 시대와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운동의 양상 역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오늘에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한 마디로 대량교육의 시작 및 증가라 할 수 있다. 사회기구의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지식의 분화 등에 덧붙여 경제력의 향상 및 장학금제도의 보편화 등이 대학 입학생의 수를 증가 시켰고, 대학시설 역시 방대하여 갔다. 경제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대량교육의 현상은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의 절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의 격

리 기타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대량교육의 출현은 학생의 정치활동의 격화와 직결된다.

학생인구가 클수록 정치활동의 영향이 커진 학생의 절대수가 커지고 학생 상호간의 의존도 조직력이 커질뿐 아니라 대학 당국이나 정부당국에 대한 대항의식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학생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일까. 첫째로 대학입학을 위하여 고등학교 시설에 심대한 준비를 강요 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주는 해방감 때문에 대체로 최초의 2년동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한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입학 지망자의 수가 늘어가는데 반하여 대학의 수용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 경향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량교육의 또하나의 결과는 개개의 대학의 규모가 커져서 많은 학생을 대학 구내 및 그 근처에서 집중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일정한 지역안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과 활동을 자극하고 확산시키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수의 청년 남녀가 비슷한 조건하에서 살고 성인사회와 격리된 상태 속에서 밀집하여 생활하게 되므로 군중심리가 쉽게 작용하며 또 상호연락도 용이하고 급속한 단결과 극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조그마한 소요도 곧 학생간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들이 수도안이나 그 근처에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정치기구나 인물이 더 많이 학생들의 관심과 행동의 대상이 되며 학생간부 역시 더 쉽게 정치화 하고 일반 학생들 역시 정치 선동가의 목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학생 소요의 첫 시작이

학생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였고 뒤이어서 역시 수만 단위의 학생을 가진 대학들이 붐기하였던 것이며 또 학생수 10만의 서울 40만의 동경이 1960년의 이정권 타도 및 안보조약 반대운동을 촉발 시킨것은 이 점을 실증한다. 큰 대학들이 밀집한 수도에서 일어난 학생의 정치운동은 발달한 매개수단을 통하여 급속도로 지방대학에 파급된다.

대학생이 거주하는 장소 역시 그의 정치활동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입학 후에도 자택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계속하여 부모의 권위와 감독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사회에 영향이 덜 미치고 집단행동에 휩쓸리는 기회가 비교적 적어진다. 이에 반하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동류의식과 공동태도 그리고 조직적 행동을 쉽게 가지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하였으며 하숙생활도 기숙사보다 심하지는 않으나 역시 토론과 행동을 같이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며 더우기 기숙사 생활보다 더 고적하기 때문에 규제없는 자유와 더불어 집단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외감을 달래는 경향을 가지며 동경은 그 가장 좋은 예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의 비문학적 사항에 관한 관심도는 교수 대 학생의 관계에도 달린다. 즉 그 대학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교수가 대학 밖의 부직을 가지고 있을때 학생수에 대한 교수의 비율이 아주 적을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수와 학생이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학생들은 면학에 덜 관심을 기울이며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덜해진다. 대부분의 시간강사의 비율이 큰 대학의 경우에

는 이 폐단은 더욱 심해진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교수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설득력을 가질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교수에 대한 일반 사회의 대우 및 존경이 클때 그리고 교수 자신이 학술분야에서 차지하는 명성과 학문적인 자부심과 사명감이 클때 학생은 쉽게 감화받고 학문의 세계에 동화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학생들은 학문과는 다른 세계를 따로 형성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졸업 및 학위 획득에 필요한 각종 규칙이 엄격하고 용이함에 따라서도 학생의 정치활동의 난이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연과학 및 기술계통과 같이 과제가 어렵고 학생의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학과의 학생은 정치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인문사회와 같이 심한 과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학과과정이 학생의 주된 관심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친목단체 기타의 각종 과외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학생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려는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다. 특히 남녀학생간의 교제가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의 정치참여는 과외활동이 활발치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종의 대체물의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은 학생의 심리적 불안이 그 태도를 동요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상급학생은 대학생활에 익숙하고 취직활동에 여념이없기 때문에 하급생보다 덜 활동적인데 반하여 하급학생은 새로운 환경과 자유덕분에 반항적인 행동을 취하기

쉽다.

끝으로 학생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학생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류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은 커다란 사회적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류계급 출신의 학생들은 낯이 경제생활에 쫓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학생들은 적당한 사회적 불만과 적당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중류가정 출신의 젊은이들로서 학생 지도자들로 이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말은 하류출신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여유가 덜하다는 것 뿐이며 그들이 아무런 사회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빈곤한 가정출신의 학생들은 일반학생보다 더 좌경적이다. 다만 이들은 사회적 출세와 특권층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므로 자신을 희생시키거나 자신의 경력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하려 한다.

부유한 학생들 역시 그들의 부모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고 따라서 더 자유주의적이므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미치며 특히 경제분야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 급진적인 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게 되는 것이나 행동에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통례이다. 중류 및 하류계층의 학생들 전체가 당면한 일반적인 문제로서는 격증하는 재정 부담이라 하겠다. 대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 재정원조의 결핍, 취직 기회의 결핍 등은 학생들의 불평과 동요를 자아내는 요인을 이루며 이들이 반드시 정치적 성격을 띠지는 않으나 하여튼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출현케 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2. 시대의 변천과 새로운 배경

이제까지 대학생의 심리 및 성격을 분석하고 현대 학생운동의 배경을 관찰함으로써 학생의 공동행동의 일반적 및 현대적 요인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는 최근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운동의 격렬한 양상,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제2차 대전 이전부터의 사회, 경제적 변동이 보여주기 시작한 장기적인 영향의 출현 그리고 새로이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동등이 상호작용하여 학생운동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는 요인들이 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그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현대사회가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2차 대전 및 그 후에 급속히 발전한 과학기술이 가져온 혁명의 결과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학생 및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동요와 반항도 이 혁명의 한 여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학생운동은 인종분쟁에서의 흑인에 대한 동정으로 시작하였고 흑인의 전략을 본받은 것이었던 바 인종분쟁의 위기 자체는 농업의 기계화와 공업의 자동화라는 과학기술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흑인 노동자들이 받은 큰 충격과 직결되는 것이다. 후진국가의 과잉 인구라는 위기도 위생시설 및 약품의 발달로 인한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출산율의 급속한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연유하며 이에 대하여 전자 통신기술 및 시설의 보급으로 인하여 선진국과의 격차가 눈에 띄게 현저하게 되어 그 차를 축소 시키려는 소위 기대의 혁명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후진국들의 좌절감과 초조

값은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을 불안속에 떨게 하고 있는 핵전쟁의 위협도 명백한 과학혁명의 산물인 것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여러문제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개인주의적 참여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거나 또는 해결을 위한 무력감을 너무나 통감하면서 지식인들은 비조직적인 반항을 시도하는 것이 현상인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취하기 용이하고 또 과격한 양상을 띠기 마련이라 하겠다.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은 현대사회와 그리고 그 사회의 일부로서의 대학에 대한 일반적 불만, 한마디로 반체제적인 항거와 활동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졸업후의 지위가 보상되지 않은 후진국 뿐만 아니라, 졸업후의 안정된 직업과 사회적인 존경이 보장되는 선진국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이 율배반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것일까. 풍요한 공업 문명과 경제적인 안정을 가진 젊은이들 학생은 개인적으로는 장래의 경제문제에 대해 당장의 걱정을 안가지나 그렇다고 안정된 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도전도 참여도 없는 거대한 비인간적인 기계사회 속에서 매몰감, 소격감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학문은 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이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여 광범하고도 심각한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항의를 제시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요구와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동기는 대규모적인 사회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결합과 부정을 시정하려는데 있었으며 통상적인 방법에 의존할 가망이 없을 때 단적인 폭동으로 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운동은 적어도 선진국에 있어서는 빈곤하지 않은 번영된 공업사회에 있어서 큰 경제적 고통도 없고 압박을 받지도 않는 비교적 부유한 젊은이들의 혁명적인 행동이며 그러면서도 과거의 개혁 내지 혁명운동에서 볼수 있던 일관된 사회적 정치적 이념과 계획이 수반되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명백한 경향으로서 6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의 학생운동이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정치력의 작용이 광범하고 강한 신생국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정치에 거의 무관심 하였던 선진국의 학생들까지 보여 주는 이와같은 정치적 관심과 행동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기성인의 책임과 윤리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절대적 목적의 윤리를 강조하는 바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이 의문시되고 정권의 타당성 또는 정책의 실패가 문제시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교육과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의 체도를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로의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기성세대가 경험한 사회질서 및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세대간의 견해차는 더 커지고 젊은 세대는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과격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행동의 성격 및 양상은 환경을 이루는 사회상태의 성격에 달려 있으므로 후

진국, 전체주의 국가 및 선진국으로 나누어서 관찰함을 요한다.

후진국에서 지식인 및 학생이 항의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교육을 받은 젊은 층과 교육을 덜 받은 전통적인 기성세대가 서로 다른 사회관을 가진데 있다. 현대교육 즉 서구식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성과제일주의와 경쟁적인 업적기준의 가치를 불러 일으켜 넣는 바 이들은 자연히 서구식 모형을 따르는 근대화를 원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급격한 제도적인 변혁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현재 제도를 고수하는 이익공동체로 간주되는 기성세대와 구제도와 구습을 타파하려는 젊은 세대 사이에 갈등은 자연히 커진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속하는 많은 후진국의 젊은이들은 발전과 근대화의 저해 요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표본으로서 공장국가를 든다. 또 현재 사회제도는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연결되기 일수이므로 그 결과는 이들 젊은 학생들의 전통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어떤 형태로든 좌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특히 현정권이 중립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학생은 더욱 좌경한다는 것은 소위 제3세계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들 학생이 반드시 소련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닌바 공산진영에 더 가까운 나라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소련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과 공산국가에서의 학생운동의 원인을 분석해 볼때 서구 및 미국과 같이 민주정치와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과격한 학생운동이 자주 일어나리라고는 언뜻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자유 과학적 및 지적 창의성 등이 높이 평가되는 산업사회에서

는 지식인과 일반사회 사이에는 긴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살펴 볼때 선진국에도 불가피하게 학생의 정치행동이 나타날 요인이 격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만 이미 대학생 인구의 증가, 경제적 번영등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 요인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대 및 50년대라는 20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에 특수요인들이 성숙하는 것을 제기로 하여 비로소 학생운동이 표면화 하였을 뿐이다.

그 특수요전이란 국내적으로는 첫째를 인종분규를 들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흑백관계는 일종의 전근대적 신분관계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민주주의적 산업사회와 양립 될수 없다. 낡은 가치와 제도를 배척하는 학생들의 양심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흑백 분리교육, 위헌 판결>에 뒤이은 흑인들의 시위운동에 대한 동정시위와 아울러 그 자극을 받아 학생들 스스로의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문제로서 또 하나 들어야 할 요인에는 사회과학의 전문화 및 기계화에 대한 일반지식인 및 비기술계 학생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이 있다. 교육을 받았어도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 할수 없는 기술적, 수량적 지식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인문제 및 비수량적 사회 과학도는 공공정책에 대한 평론과 영향력이 미약해 진다. 이들은 <이념의 종식>을 염려하면서 수량적 기술적 지식을 통한 대학의 교육정책 참여를 학문의 순수성 및 학술자유외 왜곡 또는 부패라고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 및 교육의 압력에 따라 국방 의교정책 및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비를 거부하게 된것은 이 조류를 반증하는 것

이다.

다음으로 50년대부터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화 역시 학생운동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 오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말해서 히틀러 및 스탈린이 득세한 1936년 이후 냉전 및 한국동란을 거쳐 1956년의 헝가리의거에 이르기까지 서방세계의 주요 관심사는 전체주의 정권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으므로 서방세계로는 우선 민주제도의 장점을 변호하는데 더 바빴고, 둘째로는 전체주의의 확장에 대비하는 집안 안전보장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6년의 <스탈린> 격하 및 <헝가리>의거 이후로는 냉전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반공체제에 기반을 둔 거국적인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이 소멸하게 되었고 특히 <헝가리> <폴란드>의 의거등 공산진영 내의 균열이 표면화 함으로써 철석같이 굳게 보였던 국제 공산주의의 위협이 감소 되었다. 여기서 1956년 이전에 이미 성인이된 세대와 그후에 성장한 새로운 세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견해의 격차가 커지기 마련이니 전자는 세계평화를 위한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절대적 요건으로 보는데 반하여, 후자는 이 이론이 눈앞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하여 훨씬 더 융화적이고 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월남전에 관하여 이를 국제공산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구세대에 대하여 젊은 세대는 단순한 내정문제로 보면서 도리어 서방국가 자체내의 국내문제 특히 평등의 문제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견해차는

거의 때를 같이 한 한국정세의 변천으로 인하여 전례없이 심한 세계관의 차이에 까지 발전 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 있어서 60년대의 학생의 성격이 하나의 커다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이 거의 동시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요인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들 학생 특히 그 지도자들은 비교적 부유한 자유주의적이고 좌파적인 부모의 자녀들이나 이들은 평등 민주주의 빈민구제 등의 이념을 신봉하는 진보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에 속한다. 그 부모들은 30년대의 불경기로 인하여 그리고 <파시스트>에 대한 투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좌경한 세대에 속하며 이들의 반공 및 국제적 집단안보라는 태도를 그들의 자녀는 지금와서는 시대착오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 대신 후진국과 공산국가 내지 친 공산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나라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조로 배운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을 지지하고 나선다. 서구 청년들이 카스트로, 호지명, 모택동을 성원하는 연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대의 첫번째는 그 세대 자체로써 그리고 두번째는 그 자녀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는 수도 있다>는 Lipset의 말은 오늘날 서구의 청년을 볼때 지극히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구세대의 품안에서 자라났으면서도 그 이념과 가치를 배척하는 젊은이들은 개혁이 아니라 반체제적인 혁명을 요구 함으로 그 행동과정에서 옛적과는 달리 정당과는 전혀 제휴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며 사회당과 공산당도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세력

으로 규정하여 이를 배척한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서구 선진국의 대규모적인 학생운동은 미국 학생들이 촉발 하였던 바 미국 남부에서의 흑인의 농성 행진 등의 전술이 북부에도 파급됨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내에서의 반항에서 이를 본받아 운동을 일으켰고 1964년의 <버클리> 소동 이후에는 세계 다른곳에도 확장되어 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미루어 볼때 서구 대학생들의 정치행동은 현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3. 한국 학생운동

한국학생 운동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포괄해 볼 때 한국의 학생운동은 다음의 7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 1기는 갑오경장 이후 3.1운동까지의 시기로서 이때는 이조봉건 지배 체제에서 탈피하여 개화를 위한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일으킨 시대이며 근대적 의미의 신교육 도입으로 학생사회가 형성되었고 일본의 침략과 일본의 합방정책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때 비로소 학생들은 「엘리트」로서의 사명의식을 자각했다.

제 2기는 3.1운동이후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로서 이시기는 단순한 민족주의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토대를 건설하기 위한 이념을 찾던 시대이다. 제 2기는 당시의 국제정세의 영향 아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독립운동 속에 도입된 시기이기는 하나 여기선 민족국가의 장래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치밀한 조직력과 완강한 저항력을 보여 주었다.

제 3기는 광주학생사건이후 8.15해방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특히 만주사변이후 중·일전쟁을 거쳐 이른바 대동아전쟁을 수행하기까지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때로서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으나 전국적인 민중운동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잠재기이다. 여기선 지하운동의 기술과 끈질긴 인내와 자중을 배웠다.

제 4기는 8.15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는 민족이 분단되어 국내의 사상적 분쟁이 격심했던 때로서 민족의 통일을 회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좌우의 정치적 충돌이 격심했던 시기이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한다. 새로운 국가형성의 이념과 학생

운동이 직결되는 괴로운 민족 「에베르기」의 분열을 겪는다.

제 5기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4.19 학생혁명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이 시기는 6.25 동란으로 좌우세력이 완전히 남북으로 분단된 곳에서 전쟁으로 커진 새로운 학생세력이 대두하며 침체된 사회는 공격하고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치적 부자유와 부정부패, 빈곤, 경제적 불평등, 통일 등 사회개혁적 욕구가 학생운동의 추측속에 침투한다.

제 6기는 4.19 이후 6.3 사태까지의 시기로서 4.19 학생혁명의 성공으로 학생사회가 활기를 띠고 학생세력의 사회적 발언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로서 반면 5.16 군사혁명과 혁명정부의 경제적 건설로 인하여 학생세력이 다시 위축하는 파란만만 격동기이다. 여기서 학생세력은 정치권력에 정식으로 대립적인 항거집단이 된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압력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한다.

제 7기는 6.3 사태 이후 3선개헌 파동을 겪은후의 오늘에 이르는 시기이다. 정치외의 대결에서 학원은 압력집단 기능이 축소해 갔고 한편으로 학원의 정치참여 문제에 반성을 촉구하는 파상적 운동이 점철된 고뇌의 시기이다. 파격한 학생세력에 대한 정부의 예비대책이 주효하긴 했지만 국가적 개혁 아닌 지역적 영역에서 학생운동이 파생하는 가능성을 낳은 전환기를 마련했다. 여기서 학원의 자유화가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외같은 꾸준한 흐름 속에서 제 2기의 제 6기의 학생운동이 가장 영향력과 효과가 컸고 학생사회에서 상징적 존재가 되었으며 전통으로서의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래에도 그

칠출 모르는 점은 「에베르기」의 동력으로서의 약동할 수 있을 무한한 가능성을 비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시범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이상은 학생세력은 무시하지 못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서구의 「스튜던트.파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사회에서의 학생세력의 잠재력이 강인할 수 있는 근원은 그들이 제시했던 이념이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변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까지의 학생운동에서는 그들의 요구가 긍정적이었고 당위적인 요청의 반영이었으며 다만 현실적 불가피성에서 감정적 보류를 갈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들 뿐이다. 학생운동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그 열이 사회체제 속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학생문화로서 유리되어 아직껏 살아 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한국 사회구조의 통합과정에서의 체제적 편성의 원칙이 반성된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쟁취했다라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독립투쟁의 열이 그대로 연장되어 제도로서 결실된 것이 아니었다. 상황적 요청에 따라서 국가체제가 앞섰고 사회체제는 국가체제에 주도아래 정비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학생집단은 일제시대의 민족적 항거운동에 선봉으로 나섰다. 8.15이후는 사상투쟁에 휘말려 들어간 경험 때문에 국가전력에 대한 대항집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전통으로서 보존하고 있었다. 그것이 4.19를 통하여 되살아나 더욱 더 가능성을 전면으로 부각시켰으며 그후의 6.3사태나 개헌 파동에서 계속 고질적인 반항정신을 발휘하였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체제적

통합 작용이 어딘가 차질을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하여 국가전력에 대한 반항정신을 체제속에 생산적으로 흡수하는 과업이 미결로 남겨져 있음을 뜻한다. 분명히 해방전에 학생들이 적으로 여겼던 국가권력과 해방 후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적 차이가 학생들의 반항정신 속에 제대로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반항정신이 질적 전환의 시기 속에 승화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반항정신의 동질성이 지속화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체제통합에 학생들이 선량으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이 밑으로부터의 통합을 바라게 하는 구실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로는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과의 불일치를 직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세력은 사회세력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의 불만층의 욕구를 정치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은 같은 정치신량들끼리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고 특정사회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대표적 기능을 옹기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치의 세계는 다만 사회의 상층부의 세계이고 정치권력에의 접근 가능성만이 사회 상층에로의 상승을 보장하는 유일한 통로로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는 거리를 넓히고 있고 정치화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는 불만을 자체 속으로 축적 심화 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경향의 가장 좋은 실례는 일반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 풍조라고 여겨진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기 보다는 정치인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정치인들의 선거 구호나 정강을 쉽사리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속아온 것을 알고 있다. 그러
므로 선거민들은 실속을 찾을 뿐 고상한 이상이나 원리원칙에는 아
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
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권력 상층부에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국민을 두갈래로 갈라 놓았다. 하나는
철저한 정치 이용형이고 하나는 정치 불신형이다. 지각있는 젊은이
들은 그들의 기질로 보아 불신형으로 자처하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
는 추세인 것이다.

세계로는 근대화의 물결에 뒤따른 사회구조의 해체현상이 지적된다.
우리 사회는 많은 외래문화가 밀어닥쳐 재래의 우리 것이 침식되고
우리 땅에 살면서도 남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외래문화의 영향은 크다. 그렇다고 경험이 풍부한
선진 외래문화를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서는 외래 문화를 들여오고 참고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요는 외래문화라 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의 나아갈 바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
사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대학생은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이나 「매스, 미디어」
를 통해서 새로 문화를 흡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한계인적 존재
이다. 가족문화는 재래의 한국적인 것을 운반하고 있고 교육이나
「매스. 컴」은 주로 외래문화를 전달한다. 그들은 양편의 문화에
걸쳐 생활하고 있으므로 쌍방의 문화로부터 같은 비중의 압력과

유혹을 받는다. 재래문화가 강조하는 가치의 초점과 외래문화가 제시하는 가치의 목표는 다르다. 사회는 이 두가지의 상이한 가치를 조화해서 새로운 문화에의 창조를 요구하면서도 기성인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뒤쫓는 학생들 스스로가 가치체계의 혼돈과 심적 「아노미」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질서의 무규범 상태는 그들로 하여금 이중적 공격의 화살을 만들수 있게 한다. 전근대적 모순을 공격할 때는 외래적 문화 가치를 근거로 삼고 외래적 문화의 결핍은 공격할때는 재래적 문화의 「에스프리」를 동원한다. 어느 의미에선 재래문화와 외래문화가 직접적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대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지고 있는 셈이다. 그들의 저돌적인 공격심은 여기서 축적된다.

내제는 한국 사회의 계층적 상승의 통로에 검토를 가하게 한다. 자유를 구가하는 사회에선 계층상승의 길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제도의 명목적 가치에서는 자유주의적 개방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생활의 현실에서는 계층 상승로가 차단되어 있는 곳이 있다. 하층이 일확천금할 수 있을 만한 개척지는 없고 사회구조의 (메카니즘)이 그러한 기회를 만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유일한 계층상승의 정상적 통로로서의 일을 맡고 있지만 그러나 교육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 출신의 우수한 하층 출신의 학생들은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기관과 다른 직장과의 연속성이 없다. 교육과정 속에서 발탁되는 인제가 자동적으로 사회적 선량으로서 순탄하게 상승

하는 제도적 보장이나 실질적 가능성이 박약하고 교육은 졸업장을 발행할 뿐이지 학사들은 제각기 자기의 갈길을 헤메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 충실한다는 것에 아무런 사회적 보상이 없고 따라서 교육의 권위는 학생들을 매혹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교육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세층상승의 통로로서의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함으로써 매일의 생활이 욕구불만의 투성이로 생각된다. 여기서 기성사회와 학원사회의 단절감이 실감되고 있다.

다섯째로는 한국적 현실에서의 압력집단의 무력성이 반성되어야 한다. 압력집단이 전재한 곳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참여는 그만큼 필요성이 감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연발생적인 밑으로부터의 사회혼잡의 결과가 정치체제로 연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력집단의 발생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기관이 압력집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언론기관이 전통적으로 압력집단의 구실을 맡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 집단이 그러한 역할을 사회적 사명으로 생각해 오고 있다.

대학생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인 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이나 지식인의 합리적 참여 속에서 보여준 비판정신과 투쟁정신은 학생문화속에 잠재하는 이상주의적 젊음의 열기와 쉽게 결합하여 그들이 압력집단으로서의 사명을 지원하고 혹은 완수하는 최후의 수호자로 여기게 된다. 특히 4.19의 경험은 그들의 승리를 확약해 주는 것과 같은 어떤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적 특수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은 많다. 정치적

통치수단의 발달에 대한 반발이나 불투명한 근대화 이념에의 회의, 통일과업의 시간적 지연에의 실망, 민족적 자주역량의 부족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누적적인 불만을 씻어내지 못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희망있는 사회의 약속이 그들의 눈에는 확약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4. 대학생의 의식구조상 특성

첫째로 젊은이의 이상주의의 무한한 발산을 회구한다. 어느나라에서나 「젊은 학생시절에 혁신주의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쓸개 빠진 놈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것은 보수화되는 사회가 은근히 청년에게 기대하는 어떤 소망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에게 패기를 불러 일으켜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약속하는 어떤 씨앗을 미리 길러놓고자 하는 배려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학생문화 속에서도 이 기개는 살아있고 학생운동의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정신의 구현자이어야 추대 받게 된다.

더군다나 젊은이의 교육과정에서는 인류가 축적한 이상이 모두 교시된다. 사회적 현실에의 고려는 2차적이 되고 인간의 뜻과 꿈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상을 가로막는 것은 현실이고 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이니 만큼 파기되어야 할 온갖 현실의 모순은 비로 기성세대의

부패된 정신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낙인 찍는다. 기성세대와 그들이 다른 것은 바로 그들의 혁신성에 있다고 믿는다.

젊은이의 혁신지향적 이상주의는 또한 그들의 열기와 진취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청년기란 감수성이 예민하고 다정다감한 데다가 정력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일생에서 가장 욕구 수준이 높고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낭만주의적 감상주의가 정의감과 결합되고 여기에 교육을 통한 이지적 판단이 첨가됨으로써 이상을 쟁취하려는 사회 개혁적 의지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째로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선거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적 집단결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생활에서도 물론 학생의 의견이란 학생 운영에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기준에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실이나 행동에는 가차없는 비난을 보냄으로써 이루지 못한 민권에의 애착심을 무너하는 방도를 발견한다.

잇따른 학생운동의 저류에는 민주주의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기를 비라고 낯은 권위에 도전하며 합의에 의한 의사의 규합을 찾고 만인이 찬성하는 일은 그대로 제도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한 민주적 인간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민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셋째로 그들은 자신있는 Elite 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만이 사회개혁의 기수이고 민족이해의 수호자임을 자처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민족국가의 형성원리에 직접 도전하는 적극적 참여정신에 충만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들이 민족의 미래를 도맡는 Elite 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양심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부하고 있으므로 진지하게 정치적 자주성과 경제적 부자와 사회적 민주화를 걱정한다. 따라서 그들의 발언은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통찰이고 그들의 요구는 정책적으로 채택되어야만 하는 건설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의 방향이 어떠하며 경제의 공과가 무엇이며 사회의 무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의 이상주의적 시야에서 관망하고 비판할 줄 안다.

서구의 학생운동이 향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의 학생은 향외적으로 국가의 원리 그 자체에 도전한다. 서구의 학생들이 제도로 부터 소외된 인간의 문제에 집착하는데 반하여 한국의 학생은 제도의 문제 그 자체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의 학생운동은 앞으로도 권력과의 충돌이 적지않게 발생하리라 전망된다.

요약하면 그들은 자유화의 확대와 민권의 신장과 민족이해의 수호와 혁신적 사회개혁과 선량의식의 반영을 갈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이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선량성이 제도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과감한 사회개혁을 시도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이상을 최대한으로 현실 속에서 누려보자는 요구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회구를 기성 지식인이 대변해 주지 않고 사회적 현실이 조금이라도 외면하려 들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철칙을 그들의 가슴 속에 안고 있다. 특히 지난 3선개헌 파동에서 크게 「클로즈·업」된 문제는 기성 선량에의 불신감의 가열화 현상이다. 그것은 기성세대 일반에 대한 불신과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동정적으로 보았던 언론인이나 지식인조차도 이제는 거리감을 느끼고 적대감마저 갖게 되었다.

이것은 기성세대 사회의 선량들의 지향이 어디엔가 마찰을 일으키고 조화되지 않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뜻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선량성이 기성 지도층의 선량성과 혼연일치를 하지 못하는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앞으로의 학생운동이 고립화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젊은 창조적 「에베르기」가 사회구조 속으로 흡수되지 않을 장벽이 점점 두껍게 가로놓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들의 운동이 과격성을 띠고 조직화할 가능성마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제까지의 긍정적이었던 학생운동을 의외의 방향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이상을 정치가 하나 하나 실현해 주는 일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원 속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무대를 밖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정치가 해결하고자 온갖 심신을 내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몹시 심각하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자기제도를 찾지 못하는 한 학원의 정치화는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다.

네째로 자유로운 행동범위의 확대를 열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장유유서라는 구조적 틀이 엄존하고 있었고 따라서 젊은이들의 행동이 허용되는 영역은 협소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도입과 그들만이 유독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 때문에 어른의 간섭을 배제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고등학교시절까지는 의식의 세계에서 자유의 가치가 심분 주입되나 행동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규범에 얽매이고 있지만 대학생회에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자유의 폭이 넓혀진다. 그러므로 고교시절에 억압되었던 욕구뿐만이 일시에 발산의 기회를 얻어 공격목표를 찾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사회 속에서도 또 다른 제약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제약의 책임이 학교당국과 정치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능한 바 보장된 자유의 폭을 넓히고자 원한다. 자유로히 젊음을 구가하고 마음 먹은대로 행동해 보기를 원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행동영역을 넓히는 데는 온갖 성의를 다하며 그러한 세기를 찾는 데 예민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노력만은 계속 그들의 의식의 쫓점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 3 장 북한공산주의에 대비할 정신자세

1. 승공교육의 사적개요

가. 정부수립기

우리나라 교육의 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된 후 교육법 (1949년 12월 31일 법제 86호)이 제정되었다.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헌법의 근본정신에 의거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교육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 되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7개 조목의 교육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민주교육의 철저를 기하는데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엄밀히 따져 볼때 비판의 대상이 될만한 점도 없지 않지만 어떠한 자유민주국가로써 손색이 없을만큼 되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토를 양단하고 민주의 분열을 초래한 공산주의 내치 공산체제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대책이 언급되어 있지 못하였다.

정부건립후 얼마 안되어 학도호국단이 결성된 것은 반공교육사상에 간과할수 없는 일이다.

지식층의 일부에서는 이를 독일의 <히틀러·유젠트> (Hitler Jugend)를 모방한 것이라는 비난도 하였으나 당시의 실정을 고려

할때 젊은 학도들의 반공태세를 강화하는데 유효한 학교단체이었다.

이에 앞서 1948년 4월 제주도 폭동사건을 비롯하여 여순반란사건 대구반란사건 등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산좌익분자의 파괴공작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한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를 수호하려는 민주진영의 반공의식이 점차로 높아져 공산도당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이 동년 11월에 제정되었고 12월에는 민간방공단체로서 대한청년단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었으며 또한 기왕에 반탁 학생연맹, 전국학생총연맹, 건설학생연맹, 이북학생연맹등 민주진영의 여러 학생단체가 난립해 있었던 것을 일소하고 학생호국단을 결성한 것은 학생들의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도 하여금 현실참여를 삼가하고 학원에서 자유민주의 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점에 시선을 얻은 것이다.

나. 6.25 전란기

1950년 6.25 한국동란은 인류역사에 일찌기 볼수없는 우리민족의 비극이었다. 북한괴뢰 공산적군의 불의의 불법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상쟁의 참화가 일어나 무수한 인명이 손실되었고 금수강산이 전화로 폐허화 되었다. 이 전란의 시발이 북괴의 치밀한 계획에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그네들은 남한의 북침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퍼부었다.. 실상 대한민국의 건국 설립이후 국방력은 아주 미약했고 게다가 소련측의 선동으로 미군이 철수되었던 때인지라 적군의 불의의 내습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중에도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적군을 격퇴 하였으나 다시 휴전선이 고정되고 말았다.

한국동란의 시발에 관하여는 북괴의 치밀한 남침계획이 상당한 기간동안 준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그다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명심해 두어야 할 점이다.

이는 곧 공산정권의 흥제에 대한 물건식과 대공정책의 미비를 여실하게 나타낸 일이라 하겠기에 말이다.

전략상 후퇴라는 명분아래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하고 있는 동안 전란의 장기화를 예측하여 문교부는 교육의 비상조처로써 1951년초에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는 전란 중에도 학교교육을 계속하자는 것으로서 가교사의 건축, 천막교실의 설치, 전시, 연합대학의 운영 전시교재의 발간, 전시 학습지도 요항의 작성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전시교육방침으로 「별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과 국제집단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데 둔다」고 명시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반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 되었다.

즉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라는 신념아래 공산당을 쳐 부순다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전쟁이 정의의 위한 전쟁이며 이 세계의 도의적 전쟁을 승리로 종막을 거두게 한다는 인식을 철저히 고취시키는 국방지식을 교육시키는 동시에 대학 이하 중학에서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반공교육의 지침이 명시되었다 하겠다.

전시하에 대학생들의 반공활동은 찬양할만한 것이었다. 그들은 대

다수가 참전하였고 분관으로서도 활약하였다.

그중에 학도의용대는 학도호국단과 별도로 나누어져 한동안 말성도 있었으나 자유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에서 후방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대열을 이루었다.

그들은 공산당의 잔혹성을 목전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이면에는 학도호국단의 사명이 컸었다.

그러나 종래의 체제가 너무 중앙집권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 과외활동중심의 학생차활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는 일견 전시상체제로서는 도리어 역행한 것처럼 보일점도 없지 않았으나 실상 그 전의는 민주적 자치능력과 아울러 애국정신의 함양을 중시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군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각 학교장 책임하에 창의로써 자유로운 운영을 할수있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별 호국단은 역시 학도들의 자유민주 정신과 아울러 반공의식을 고취하는데에 유효하였다.

그런데 1960년 4.19 학생의거에 따르는 정변으로 말미암아 학도호국단은 마비상태에 빠져 버렸고 민주당정권은 해체의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는 학원의 반공에 대한 과외활동은 희미해지고 말았다.

그대신 교과과정에서 반공교육의 분제가 새로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전란이 아직도 치열하던 1952년 정부는 전시분교, 전국분교, 독립분교의 삼대목표를 내세우고 새로운 분교행정을 전개시 임시태세로서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멸공구국사상의 함양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실상 민주사상, 민족사항, 도의사상, 생산증강, 국방력강화등을 앙양하면서 교과내용으로 보아서는 적극적인 반공교육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

우리 국민의 의사도 아닌 의세로 억지 휴전이 성립된 후로 전제의 복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도 점차 정상화해 갔다.

그러나 공산도당이 저지른 막대한 행패는 잊으려해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는 중에 온 국민은 공산도당에 대한 산 교훈을 얻었다.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온 자유세계의 국민에게도 공산침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여기에서 유엔의 근본정신에 선 자유세계의 집단안전보장이 요망되었고 우리 한국이 또한 이에 동조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안되어 한미방위조약이 성립되었고 참전 16개국과의 우호유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창조로 1954년에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결성발족하였음은 특기 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역시 국내의 반공교육에 여러가지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 반공교육의 강화

1960년 4.19 학생의거에 따르는 정변은 한동안 반공태세에 동요를 일으키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의 틈을 타서 북한괴뢰의 침투공작이 날로 심하였다.

이윽고 제2공화국을 선포한 민주당 정권은 약체정부로서 정권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정객들의 진공적인

경거망동 조차 막아낼 수가 없을 정도이었다. 그러는 동안 공산당의 파괴공작은 직접 간접으로 우심해 갔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67년 5.16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무혈혁명으로 이루어진 군사정권은 혁명공약의 제1조항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내세웠다.

그리고 제5조항에는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은 반공의식에 불타는 인사들에게 매우 고무적이었다.

군사정권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공체제는 재정 강화되었다. 우선 반국가 단체 또는 공산계열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기로 하여 이를 그대로 실시하였고 이어 반공법이 제정되었으니 이들은 반공정책강화의 실증이라 하겠다.

그것은 한갓 국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62년 한국반공연맹의 주동으로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의 임시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자유 아시아의 반공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민족연맹 자유「센타」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유「센타」는 자유수호의 총본산으로 반공활동을 국제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임에 틀림없다.

군정을 끝맺고 민정으로 옮겨갈 무렵 1963년에는 반공교육에 획기적인 분교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대학에 있어서는 거의 등한시되고 있다. 하기야 학생회가 과외 자치활동으로서 사상훈련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

히 정치, 경제, 법률 등 사회과학계열의 교과과정에는 공산주의 이론이 언급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반공교육이 정상적으로 다루어져 있지 않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한 한국철학회에서는 1963년 문교부 및 각계 요로에 「중고교 도의교육 및 대학의 사상교육충실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일단은 다음과 같다.

「이북 공산괴뢰 정권아래 있어서는 고등학교부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그들의 유일한 철학이라 하여 가장 많은 시간에 배정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항할만한 조치가 우리한국의 대학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공을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남북통일의 앞날을 위하여 현상 그대로 묵과할수 없는 긴급한 일이 아닐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중고교에 있어서는 특히 도의과정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6개항을 지적하였고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도의과를 교양필수과목으로 할것을 전제로 하고, 1) 철학의 일반이론, 2) 공산주의 철학의 비판, 3) 한국사상, 4) 현대사조와 자유민주 이념, 5) 민족정신 등의 강화를 지적하였다.

과연 대학교육에 있어서 일반교양 과목으로서 철저히 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이는 앞날의 남북통일에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결코 경시할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처지에서 일부대학에서 교양시간으로 반공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실정을 보전데 어떤 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수가 각 분야에 걸쳐서 담당하고 있으며 뚜렷하게 체계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세계의 분체를 다루어 매주 2시간씩 동교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0년에 들어와 문교부가 국민윤리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윤리와 아울러 공산주의 비판에 관한 요목을 내용으로 하여 교양 필수과목으로 4학점을 배정하여 전국 대학에서 실시하도록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국민윤리담당 교수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교과내용의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공산주의에 대비할 정신차세

가. 새윤리관의 확립

우리는 이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유신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겠거니와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온 정신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정신의 힘은 국민의 윤리관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윤리관이 국력의 부강을 이루는 원동력을 이루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 반드시 윤리적 혼란과 모순이 나타난다. 즉 새 시

대의 윤리관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낡은시대의 윤리사상은 그 가치에 대한 불신임을 받게된다. 따라서 낡은 윤리사상은 혼미상태에 빠지고 동시에 무질서한 윤리도덕 속에 사회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사회에는 새로운 윤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나간 시대의 윤리사상은 이미 낡았고 또 밖에서 새로 들어온 윤리사상은 우리의 실정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우리 민족은 오늘 확실히 윤리적 수난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윤리관이 수립되지 않고는 행복하게

도 참되게 살 수 없을것 같다. 현재 우리민족의 당면과제 중에서도 가장 큰것이 윤리도덕에서 생기는 혼란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도덕의 혼란이라는 것은 비단 악성 도덕이나 그 이외의 경계안정이 되지 못한데서 오는 여러가지 범죄의 속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관념의 혼란과 타락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생활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범행이나 악성 도덕같은 사회의 질서가 정돈되어 감에 따라서 점차 없어질 수 있는 분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덕관념의 혼란분제나 부패분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성질의 분제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친구 윤리사상의 트러블 같은 것은 그 좋은 보기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다음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한국 윤리관을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사상을 순수한 외래사상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윤리사상은 후진성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가의 것을 가져다가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식물이 풍토가 다른 땅에 옮겨지면 잘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사상도 역사적 풍토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잘 맞지 않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대주의 사상에 도취하여 구미 선진국의 것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본다. 오늘 우리가 윤리관을 세우는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대주의 사상이다. 지금 서양의 몇 학자들이 현대 유럽 문화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지속될 수 있는 학문적 근본 원리를 동양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이때에, 서양만 우러러 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질서는 도덕적 가치관의 재정립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기, 방일한 행위 금력만능의 사고 상호불신 등의 풍조 모두가 도덕관이 확실히 서있지 못한데서 도덕적 갈등에 빠지기 마련이다. 박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도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셨다. 이는 특히 대학생의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모범적 실천속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새 역사의 창조는 민족과 국가와 국민이 아울러 잘살 수 있다는 가치관, 즉 유신적 가치관을 실천함으로써 도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우선하여야 한다. 이것이 통일을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의 기초적 작업인 것이다.

나. 민족주체성의 확립

한 민족이 그 역사와 환경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운명을 스스로

로 개척해 나가는 정신자세가 곧 주체성이다. 오늘에 <10월 유신>도 제일의적 과업은 주체성을 찾는 데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통일 노력의 원천적인 문제이다. 주체성없는 민족은 자기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 없고 역사를 창조할 수 없는 민족이며 언제나 타에 예속되어 있는 역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지난 역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되어 왔던 과정이 너무나 길었고 따라서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사상에 잠식되어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서 근대사에서도 악순환은 계속되어 왔다.

미, 소의 흥정이 하필 우리 국토의 분단을 가져 왔음은 무엇을 뜻함인가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냉철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일찌기 도산 안창호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며 민족의 주체성을 외쳤다. 오늘날 복잡미묘하다고 하기 보다는 심각화하고 있는 내외적 상황 속에서 새힘을 창조하여 응비해 보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강주의에 대처하는 주체적 자세를 어떻게 정립하나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주, 자조, 자립, 자위, 자결의 유신정신 구현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러한 자주 자립 자위정신의 결정은 민족주체성을 이룬다. 민족주체성이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혼이요, 힘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역사적 사회적인 특수성을 냉철히 직시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하겠다.

주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경계하여야 할 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외래문화의 풍습을 무비판적으로 영입하지 말고 선택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민족적 자부심과 용기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개척정신을 배양하여야 한다.

셋째, 외세의 이용을 자제하고 국민단합의 위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이 다소 비약되는 감이 있겠으나 필자로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민족성의 개조>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성중에는 분체되고 있는 의타, 시기, 분열, 사대, 보수, 숙명성 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를 자유적이며 협동적이며 개척적인 민족성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가적 노력도 그 훌륭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성의 개조는 인위적으로 국가의 힘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할 수 없으며 국민 각자의 각성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체이다. 어떤 사람은 민족성은 그 민족의 전통적인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개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하나 그렇게만 판단하여 넘길 분체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신과업의 일환으로서 주체성 확립을 위한 민족성 개조운동부터 선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는 곧 통일노력의 기본 자세인 것이다.

다. 대공의식의 제고

우리는 줄기찬 통일노력의 개막을 본 오늘의 남북대화는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주장과 이익의 관철이라는 장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심하여야 할 점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음으로써 승산이 있게 모든 가치관이 상이해 졌고 획일사상으로 놀랍게도 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피상적 형식에 치우친 점이 없지않아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향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 4 장 남북대화 교류에 대한 학생여론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대학생들 사상을 사상적 취약세력으로 보고 있
는듯 하다 :

그것은 통일관 안보관에 있어서 불건전성을 뜻할 것이며 이러한 관
점은 몇가지의 선입관이 작용하는 요인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대학생은 그들이 대부분 성년기에 들
어선 청년이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
로써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 미숙한 하나의 인
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대학생과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상호불신의 관계
에 서있기때문에 일종의 반항심리가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학생이 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념적으
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학생들이 어떤 정치적의식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대한 태
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당면의 관심사
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본대학 학생 약 300 명을 대상으로 하여 11
월 남북대화 교류에 대한 간이 여론조사를 단편적이거나 실시하여 이
것을 근거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생선도 방안의 자료로 수집
하여 보았다.

1. 여론조사의 설문과 그 비율 내용

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설문 1) 통일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냐에 관해서는

가. 항상 염원 하고 있다. 67%

나. 관심만 가지고 있다. 31%

다. 정치인이 할 일이다. 2%

(설문 2) 통일수단에 관하여는

가.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77%

나. 무력통일 13%

다. 잘 모르겠다. 10%

(설문 3) 통일방안에 관하여는

가. 남북대화를 통한 자주적 통일 방안 58%

나.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방안 17%

다. 연방제 9%

라. 잘 모르겠다. 16%

(설문 4) 남북회담의 전망에 관하여는

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15%

나. 어렵지만 추진되어야 한다. 60%

다. 불가능하다고 본다. 23%

라. 잘 모르겠다. 4%

(설문 5) 남북교류 방안에 관하여는

가. 인도문제 →문화·경제문제→정치문제 49%

나. 문화·경제문제→인도문제→정치문제	35%
다. 정치문제→인도·문화·경제교류	10%
타.기타	6%

(설문 6)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하여

가. 긴박하다고 느낀다.	37%
나. 다소 염려된다.	61%
다. 잘 모르겠다.	2%

(설문 7)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가. 잘되고 있다고 본다.	34%
나. 그런대로 되고 있다고 본다.	57%
다. 잘 모르겠다.	9%

(설문 8) 공산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대하여

가. 잘 알고 있다.	33%
나. 다소 알고 있다.	57%
다. 잘 모르겠다.	10%

이상 본 조사에 따라 그 내용을 보면

① 통일에 대한 회구와 관심도는 대학생에 있어서 큰관심을 갖고 염원하고 있음을 엿볼수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남북대화의 진행에 따르는 좌절감 내지는 불안감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표명하는 수가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통일수단에 관하여는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진 현시점에서조차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며 전쟁에 의한 상태변화를 대학생들이 별로 원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보여지며 잘모르겠다가 또한 주목할 문제라고 본다.

③ 통일방안에 관하여는

남북대화를 통한 자주적 통일방안이 절대 다수요 다음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방안이 그다음으로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데서 유래된다고 보며 그중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방안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의 유엔 기타 국제정치의 동향과 상응적 여론의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에 있어서 연방제의 의견은 비록 그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 하여도 앞으로의 승공교육에 있어서 다루어 이해시켜야할 중점에 하나로 본다. 대학생들의 이와같은 의견표현이 반드시 북한에 동조하는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끝으로 잘모르겠다는 수가 상당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은 남북대화의 현실점이라도 관련성이 있는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④ 남북회담의 전망에 관하여는

현시점에서 보아 남북회담의 중단상태가 학생들의 견해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나 또한 어렵지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수의 비율이 절대 대다수임을 보여준다.

⑤ 남북교류 방안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대학생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통일 접근을 위한 교류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우선안에 대하여 별로 관심내지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⑥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하여는

대학생들이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한 반응은 대북경제심을 측정하는데 많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에 대한 현실과 이론에 입각한 대공교육의 문제의 하나가 된다고 본다.

⑦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이 질문에 대한 태도 표명의 비율을 볼때에 공산주의에 대한 승공교육의 재평가와 아울러 정부시책 특히 경제정책과 그 진행과정에 대하여서도 좀더 교양강좌 기타를 통하여 이해와 관심도를 높혀 줌으로써 유신과업에 적극 참여할 의욕과 협동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⑧ 공산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대하여는

우리가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국력을 극대화 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에 비추어 승공정신의 함양과 국민총화 단결을 이루는 것이 그 근간이 되는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비판과 그 실정에 대한 교육에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문제점

이상에서 단편적이거나 대학생의 남북대화에 대한 정치의식 및 통일 안보관의 구조와 그특징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학생의 의식구조중에서 가장 문제가되는것은 통일 안보관에 내재될것이며 그것이 또한 현실적면에서 오늘날 학생운동에 여러가지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이러한 대학생의 동태에 대한 분석이 올바르게 평가 되어야 할것이며 동시에 대학생을 교육하는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지도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이 따라야 할것이며 아울러 국가적으로 정부당국의 대학 교육정책 추진에 시정책이 마련되여야 할것이다.

첫째로 대학생들의 통일에대한 회구와 관심도에 있어서 기대수준이 현실수준을 상회하며 따라서 기대와 현실간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도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허탈감 또는 좌절감을 지양하여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유신과업 수행에 국민총화를 이루서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할것이다.

둘째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비록 그 수는 얼마 안된다 하여도 북한측이 내세우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결방안에 동조내지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대학생이 완전히 무시할수없는 수에 이른다는점은 앞으로의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통한 정치교육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셋째로 통일실현의 단계적 수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지도의 통일성의 집중화가 더욱 필요할것이라고 보여진다.

넷째, 근자의 대학생의 집단운동의 경향도 통일문제나 적십자회담에 대한 현실적으로 대내 문제에서 보상하려는 감수성 많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작용에 큰 영향을 비치고 있는 원인에 하나로보며 이에 대한 선도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

다 . 남북대화 교류에 대비한 학생선도 방안

오늘날 우리는 현상유지 속에서 화해와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열강들의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 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통일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있어서 박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것이며 동시에 「6.23 선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조치가 바로 유신체제요 여기에 이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안보체제의 강화, 국력배양의 극대화를 기하여 총매진 하여야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바이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시국에 처하여 대학과 대학인의 국가적, 사회적 사명이 그어느때보다 중차대 하다고 할수있다 . 그러나 작금에 전개된 학원사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또한 제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아울러 학생선도 방안의 새로운 제시를 통하여 학원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나라 지식층의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그사명을 다할수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

여기에 남북대화 교류에 대비하여 대학생들의 공산주의의 이론적 비판능력을 제고할수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선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다 .

2. 선 도 방 안

가. 학원의 교권확립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대학의 사명이 연구와 교육과 봉사에 있으므로 먼저 교수는 연구에 충실해야하며 연구하는교수, 공부하는 대학생의 분위기 조성을위한 선행조건이 오늘날과 같이 대학의 양적 팽창에 따라 질적 저하의 경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일반사회에 있어서도 대학경시의 풍조에서 대학이 소외되고 있음을 볼수있다. 한마디로 지난번 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에서「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원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문젯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학과 대학생의 위치를 재발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개발의 선타로서 부각되어야 할것이며 그렇기 위하여 먼저 대학의 시설확충과 교수처우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책의 박차와 교수자신들의 연구분위기 조성의 상호 상승작용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제고되는 산학협동은 비단 산업경제면만이 아니라 자연, 인문, 사회 전반에 걸친 유대와 협동의 체제확립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학원에 있어서 대학생 지도는 학원자체가 교수 책임하에 처리될수있는 체계가 검토되어야 할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교수의 학문적, 지도신념 내지는 능력상 권위와 사회적으로 이것을 보장받을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요청된다.

나. 안보교육의 현실화

대학생에 대한 안보교육이 현실적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안보교육은 많은 경우에 관념적 교육에만 그치고 있는바 이것에 현실성을 부여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공산주위에 대한 교육이 이념과 이론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산국가의 제도 및 실태분석과 그 비판에 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예로 국민 윤리과목을 통해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교육을 관념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더 북한의 현실의 올바른 교육과 평가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3) 담당교수 또는 연구자가 공산권 또는 북한에 대한 현실을 교육할 수 있는 생자료의 분석자료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

다. 학생에 대한 연구참고 기회의 확대

통일문제, 안보문제, 공산권 및 북한에 관한 연구에 학생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 비판능력을 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이 그러한 특수문제를 연구시키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선행 또는 병행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대상 학생의 선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회 간부 또는 씨클 멤버등에서 선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편성한다.

(2) 각 대학에 설치된 해당분야 연구소나 그와 비슷한 학과의 교수책임하에 연구를 하여야 한다.

(3) 그러한 연구소나 교수책임하에 대학생에게도 해당분야에 대한 자료를 점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운영의 중점은 그러한 연구소나 교수가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부터 출발함으로써 선도적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라. 강의과목 또는 교과서 개편

전전한 통일과 안보관을 가지게하여 민족적 정통성을 역사속에서 찾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목의 설치와 교과서 내용의 개편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1) 사회과학계 학과에서는 공산국정치론 또는 안전보장론과 같은 과목을 설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국민윤리 과목의 교과서를 크게 개편하여 공산국의 현실과 북한실태에 관한 것을 보완하여야 할것이다.

마. 종래 대학에 있어서 안보특강에 대한 교수 학생들의 선입관념은 단조롭고 일률적이라는 인상에서 별로 그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과 교수들의 식견을 매스컴에 의한 일반국민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고 그관심도와 참여의식을 양양하기 위하여는 입체적 (예를들어 슬라이드 사용)으로 또는 좀더 전문적분야에 걸쳐 아카데미크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고위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강연이 보다 효율적일것이다. 이와 아울러 교과서적인 국가사회의 이론을 넘어서 현실적 제문제가 대학생의 관심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사명감을 드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본대학 학생의 교양강좌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여론 측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학생 500명)

① 정기적 교양강좌의 개최

대학에서 정기적 교양강좌의 개최에 대한 의견에서 원하는 학생이 81.0%, 원치 않는 학생이 19.0%로서 대학당국의 학생의 교양을 위한 정기적 교양강좌의 개최를 필요로 함을 알린다.

② 교양강좌 회수

그들이 원하는 교양강좌의 회수에 대한 의견은 1년에 몇번 정도가 13.5%, 월단위로 1회정도가 73.4%, 주당 1회정도가 13.1%로 대다수의 학생이 월단위로 교양강좌의 실시를 바라고 있다.

③ 교양강좌의 내용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의 내용에 대한 의견은 대학생활과 오늘의 정세에 대한 내용이 32.2%, 철학적인 내용이 20.8%, 경제생활에 대한 내용이 9.0%, 고민에 대한 내용이 6.2%, 자연 과학에 대한 내용이 5.9%, 교육일반에 관한 내용이 5.3%, 종교에 관한 내용이 2.9%, 기타가 1.5% 순위이다. 여기서 대학생의 교양강좌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1954年10月1日

在1954年10月1日，我们收到了你们的来信，并很高兴地收到了你们的来信。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

你们来信中提到的关于你们的工作，我们感到非常高兴。